

한전KDN 임원 비위관련 이첩민원 조사보고

1. 조사 배경

- 한전KDN 상임감사*의 외유성 국외출장 의혹 등과 관련된 이첩민원 조사 실시('23.01.27.)

< 비위 제보 내용 >

- ① 코로나 상황에 골프, 관광 등 부적절한 외유성 국외 출장
- ② 공용차량 사적사용, 현지비용 지사·법인 부담 의혹 등

2. 조사 결과

< 총 평 >

◆ 코로나 상황에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긴급성 및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시찰 등의 현장 방문, 일부 외유성 부적절한 국외출장 실시

- 국외 출장 중 일부 관광 실시 의혹에 대하여는 사실로 확인
- 골프일정은 미확인되었으나, 코로나 상황에서 3개기관 상임감사가 2~4차례 일정 동반 수행 및 식사한 사항은 부적절
- 또한, 지사·법인 현지 식비 부담 및 지사 차량 이용은 일부 사실로 확인

□ (코로나 관련 정부 지침 미준수) 코로나 관련 정부지침 상 국외출장이 제한됨¹⁾에도 부적절하게 불요불급한 국외출장 실시

- 7차례 14개국²⁾을 방문하여 수행한 출장내역은 긴급성과 시급성이 낮은 단순 현장방문 및 현지직원 격려, 관계자 면담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됨

□ (출장 중 일부 관광사실 확인) 해외출장 중 상임감사와 감사수행원이 4차례* 부적절하게 출장지 인근 관광지를 방문한 사실 확인

1) 정부 등 공공기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및 취소, 공공기관 모임,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준수를 철저히 하고, 출장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및 국외 출장은 필요성,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,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최대한 자제 또는 연기 등

2) UAE/이집트, 미국/과테말라/엘살바도르, 인도/베트남, 모로코/세네갈, 일본/베트남, 캄보디아/ 라오스/ 베트남

- (3개기관 임원 부적절한 출장일정 동반수행) 코로나 상황임에도 한전KDN, 한전, 한전 KPS 임원이 해외출장 중 2~4차례에 걸쳐 다수 직원들이 포함된 식사 등 출장 일정을 동반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, 골프 의혹은 부인
- (현지경비 지사·법인 부담) 상임감사 등이 출장 중 현지 지사 등 으로부터 식비와 이동차량 일부 부담시킨 사실 확인
- (항공료 이중 지급) 기 제공된 이코노미석 취소없이 비즈니스석 발권
 - 비즈니스석을 탑승할 목적으로 서울대에서 제공된 이코노미 항공권(11.26. 다낭→하노이)을 취소 없이 비즈니스석을 추가 발권하여 예산 낭비(198천원)

3. 조치 계획

- △△△(임원) : 경고(기관) / 통보(인사자료)
 - 임원은 법리적으로 「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」 및 「정관」 등에 따른 해임 외에 징계 등 별도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음
 - 그러나, 조사결과에 따른 비위 사실에 대한 엄중 조치가 불가피한 바,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‘기관경고 및 통보(인사자료)’ 조치
- ▽▽▽(한전KDN감사실 차장) : 경고 요구(개인)
 - 코로나 상황임에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적절한 국외 출장 계획수립 등 업무수행 부적절 책임 등
- 시정(환수) 요구·개선 요구
 - 현지 법인 등에게 부담시킨 식비 및 차량이용, 업추비 집행에 대해 여비 정산 등에 따라 환수(2,908천원)토록 시정 요구
 - 현지지사차량 이용시 일비 감액을 「여비규정」에 포함토록 규정개정